

사 설

인도네시아 사태에서
언론의 교훈

저항의 강도는 강압의 정도로 결정된다.

수하르토의 퇴진은 바로 그러한 평범한 진리를 또 한번 일깨워 준다. 인도네시아의 5월 봉기는 18년 전 광주 5월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부패한 군인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과 독재를 합리화하는 개발자본주의의 파산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수하르토가 사임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국제적인 금융위기였다. 이른바 IMF체제라고 하는 경제위기는 30년간 완고하게 지속되었던 정치체제마저 뒤흔들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경제논리가 정치까지 미친 예는 멀리 볼 것도 없다. 97년 말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IMF 체제로 인해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함께 IMF의 관리를 받고 있는 태국의 경우도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사태에서 얻어지는 교훈은 단지 국제금융의 막강한 영향력을 실감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수하르토와 그 일족들이 국가의 기간산업을 장악하고 온갖 특혜 속에서 고수 성장을

이뤄낸 기형적인 경제체제는 필연적으로 인도네시아 민중들의 절대반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절대반란에 허덕이는 민중은 예민할 수 밖에 없다. 비록 시위 도중 화교 소우의 상점에 대한 약탈과 방화가 있었기는 해도 그것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민중의 정당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즉별 경영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 없이 IMF에 기대는 방안은 애초에 가망이 없던 것이었다. IMF가 지원하는 모든 재원은 바로 민중들 그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하르토의 일족이 장악한 즉별 재벌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던 것이다. 출발은 극심한 물가고에 대한 항의였을 지 몰라도 그 정점에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항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80년 광주를 경험한 한국이 오히려 98년의 인도네시아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바로 우리 자신이 개발독재 시대를 경험했다는 데서 시작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졌던 시위와 항쟁이 노동자의

끊임없는 희생의 끝머리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재벌개혁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귀결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재벌 개혁은 단순히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수준,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 비대해진 재벌의 개혁은 사회적인 부의 적절한 배분과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정착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서 최근 정부의 미적지근한 재벌 구조조정 작업은 모처럼의 개혁의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재벌개혁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개발독재 시대가 그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다면 모처럼의 개혁은 요란한 구호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광등한 사회 건설의 당위성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 희 만 평



세시봉

호랑이앞에
떡 없이 선 노동자

'떡 파는 아줌마' 이야기가 생각난다.

아줌마 산행 중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난 호랑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떡을 줬다. 잠시 후 또 나타난 호랑이,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또 떡을 주는 아줌마. 그렇게 하나씩 떡을 주던 아줌마, 떡이 떨어지자 호랑이에 게 잡아 먹고 말았다.

호랑이는 날마다 배가 고파를 짓고 그 산을 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 금 산을 넘고 있다. 더불어 무수히 많은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고통분담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것을 내어 주어야만 한다고 인식되는 시대. '언제 물가가 또 오를까', '나의 아버지는 언제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를 걱정



최용섭 시사부장

해야 하는 시대다. 정부개혁, 재벌 개혁 없이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역을함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 부실기업 정리가 구제화 되어가고 있다. '5월 말까지 정리할 기업'을 정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가속도가 붙은 듯하다.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아이러니컬한 상황 속에서도 재벌 구조조정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과제라는게 현실이다.

망하게 할 기업의 리스트는 '살생부' 단지 무어만으로도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다시 불안정해졌다. 정부는 희생가능한 기업을 살리는 데 구조조정의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지만,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도무지 모호하다. 금융계에선 부실기업 정리계획에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서둘러 시한을 발표하려다가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아니면 구조조정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원칙이 없다면 보나비 비리에 의한 새로운 관치금융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우리 경제가 호랑이를 만나도 가족을 버텨 버릴 수 있는 강한 아줌마가 됐으면 좋겠다. 정부가 단순히 알비운 호랑이로 전락한 채,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 않기를 국민들은 진심으로 바랄 것이다. 원래 호랑이는 떡을 먹는 동물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된 작은 교훈이었다.

시사 6·4 지방선거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선거, 민주주의의 축제 되기를

이 동 선

〈여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는 6월 4일 제2기 민선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다. 1995년 6월 27일 선거가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면,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달 개정된 선거법은 여야가 소위 'IMF 법안'이라고 자평한 바대로 지방의원을 축소하고,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을 금지하고, 노동조합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였으며, 선거운동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연합 공천 금지의 명문화, 기초 단체장 정당 공천 배제 등의 참여 문제에는 타결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선거법은 향후 국회의원 정수 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권의 연쇄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참여한 선거 정국이 시작되었다. 여권은 이번 선거를 새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규정하여 승리할 경우 여소야대 구도를 무너뜨려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다. 여권은 호남, 충청 및 수도권에 비롯한 강원, 제주를 석권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갈 계획이다. 반면 야권은 신정부의 인사편중과 실업대책 혼선 등을 공격하여, 정계 개편 기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선거에서 영남 5개 지역과 수도권 1-2곳, 강원과 제주 중 한 곳에서 승리하여 새 정부의 독주권을 견제할 계획이다.

'민주주의의 축제'보다는 '선거 망국론'이라는 말이 더욱 친근하게 들리게 된 선거 과열의 최대 원인은 중앙당의 지나친 개입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리 예견되었다기보다는 어쩌면 '필연적'이라는 말이 더 적합한 것 같다.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

“ 지방자치는 권력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양식을 탈바꿈하는

거대한 개혁의 흐름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민주화의 밑거

름이 되도록 해야 한다. ”

향과 여야의 주도권이 바뀔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의 내부 권력 이동까지도 동반하는 향후 정국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당은 이번 선거를 정국 주도권 쟁탈을 위한 사활을 건 진검(眞劍) 승부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벌써 우려될만한 탈법 선거의 조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인 정당들이 먼저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기초 의원 선거에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당은 내부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 운동은 이미 비방과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다.

어찌하여 한국의 정치문화가 여기까지 왔느냐며 개탄하는 사람도 있고, 이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한국병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에서 정당 참여(partisanship)와 정당 배제(non-partisanship) 논쟁은 이제 고전적 주제가 되어 버렸다. 그동안은 하향식 정당 조직과 운영 및 미성숙성이라는 우리 정당의 특성상 지방정치와 연결될 때 공천 부조리, 중앙 정쟁의 지방화, 지방의 중앙 예측, 지역 감정 유발, 지역발전 소홀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정당 배제론이 지배적이었다.



▲ 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거리유세를 벌이고 있지만 듣는 이가 드물다.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참여장치가 없는 지방분권은 자칫 지방실립을 소수가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넋방을 위하여 ※※※※※
^^: 당황한 얼굴
O.O: 의심하는 얼굴
O.O: 놀란 얼굴
T.T: 우는 얼굴
..: 황홀한 얼굴
..: 무표정
><: 췌그린 얼굴
^_^: 미소
^__^: 더큰 미소
^o^: 웃는 얼굴
^o^: 더크게 웃는 얼굴
==: 졸린 얼굴
..: 생각중
..: 멍든 눈
o.o: 안경 쓴 얼굴

오늘 좋은거 하나 발견했쥬~

학교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범생이임) 가판대쪽으로 자꾸 시선이 끌리는고야.

두리번~두리번~ O.O 뒤를 사색! 돌아보니, 그건 동/아/일/보/때문이이었어!

증말 달라진고 있쥬? O.O 가로쓰기에, 굿모닝 미즈앤미스터, 굿모닝 이코노미, 굿모닝 스포츠...

무지 x2 볼 거 많구, 아주~우 근사하구... (헉헉, 정말 많쥬?) 근데, 왜 대한민국 도날드, 카툰클럽을

킬킬대며 보다가 네 생각이 났을까? 감동했쥬? T_T 너 요즘 뜨는 만화에 관심 많자노?

야, 세상 달라졌드라~ 동아일보 안보론 - 안보론 - 클클클... 너 왕따돼도 나 책임 안진다.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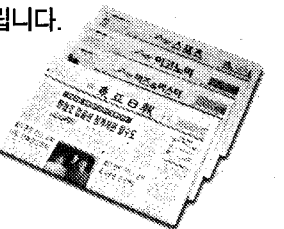
음, 동아일보 얘기하다가 수업시간 늦쥬다. >.<

그럼 이따부아아아~ 쿵쿵... ^ _ ^ 빠2~

- 읽기편한 가로쓰기와 젊은 감각의 3색선 신문
- 다양한 정보로 독자의 욕구에 바로 맞추는신문
- 복잡한 사회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신문
- 독자와 항상 대화하는 채널을 지닌 신문

동아일보는 정보화 시대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정보를 걸러 지혜를 드립니다.



정보민주주의 -

東亞日報